



저승에서 사람들을 구하시는 예수님 프란 안젤리코작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up>st</sup>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iskc.org@gmail.com

주임신부 : Joseph Juracek,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김효주 (투스 평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 제1독서 | 사도행전 9,26-31

### 화답송



(후렴)주님, 저는 큰모임에서 당신을 찬양 하나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나의 서원 채우라.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 찾는 이들은 그분을 찬양하라. 너희 마음 길이 살리라. ◎ ○온 세상 땅끝마다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만민족 모든 가문 그분 앞에 경배하라니, 세상 모든 권세자들 그분께만 경배하고, 흠으로 돌아가는 모든 이들 그분께 무릎 꿇으라. ◎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 제2독서 | 요한 1서 3,18-24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복음** | 요한 15,1-8

**성가** | 입당성가 [35] 예물준비 [218]

영성체 [417] 파견성가 [135]

### 미사봉헌

#### 연미사

임순남 엘리자벳  
임순남 엘리자벳  
이중근 요셉  
김용기 요셉  
김영복 아녜스, 조화장 안나  
원근자 체칠리아

#### 봉헌

김미혜 이레나  
김성중 다두  
익명  
박정자 로사  
박정자 로사  
이하나 세실리아, 피터방베드로

#### 생미사

강진영 릴리안  
남금천 요한  
이지연 안나레지나  
이병국, 이지훈아녜스, 이미진조앤그레이스  
이만재, 원광남  
손지상 건강회복  
황지윤 아녜스, 이영주 비오 혼인성사 5/11  
이서안 치릴로  
문에릭 엘리지오  
김도윤 바오로 생일축하  
유비타, 유선옥 베로니카 가정

#### 봉헌

김소민 크리스티나  
남지혜 크리스티나  
이영애 레지나  
이영애 레지나  
이영애 레지나  
손종애 안젤라  
익명  
허헌근  
가족  
김수현 실비아  
익명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4월 28일	김유화	송명근	민덕미	민덕미	김영숙	조바실리오 김실비아
5월 5일	백이백	정은철	류유리	류유리	유정옥	이유스티나 양글라라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전신자 묵주기도 10만 송이 봉헌하기**  
기간: 10/01/2023~ 09/30/2024 \*현재: 71,496단

▶오늘 미사 후 친교모임

다미아노 흠/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사업체 후보 광고 1년 신청 안내

주보에 홍보가 필요한 사업체의 신청받습니다.  
신청장소: 미사후 재무데스크, 신청 마감 5/19(주일)  
신청비: \$300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 명함과 함께)

▶5월 성모의밤 일사: 5/4(토) 오후 7시, 대성당

성모성월인 5월, 일생동안 신앙의 모범이 되어주신 성모님께 기도드리며, 꽃 봉헌 원하시는 개인이나 단체의 신청받습니다.  
미사후 재무데스크, 꽃봉헌 마감: 4/28(주일) \*단체 꽃 봉헌금액: \$40  
\*꽃봉헌 개인, 단체(합계:\$390): 박신희, 배옥희, 린다김데레사, 진봉숙 MCAT심리치료코리닉, 박병심, 김민정, 노사비나, 이미숙, 학부모회, 연령회

▶청년분과 주최 아유회 BBQ

일시: 5/4(토) 11:00~16:00  
장소: Roosevelt Isand Lighthouse Park  
참석희망자는 인원제한 및 정량의 음식과 음료 준비를 위해 5월 1일까지 신청 부탁드립니다.

▶양말 판매, 오늘 미사후 친교실

좋은 원단으로 부담없이 신는 남성, 여성 양말입니다. 기부 받은 제품으로 수익금은 전액 바자회 기금으로 입금됩니다.  
가격: 10볼(6컬레)

▶'성프란치스코의 집' 재속회 바자회에 오세요~

일시: 5/5(주일) 9am~3pm, 성프란치스코의 집  
주소: 147-07 Bayside Ave Flushing, NY11354

▶제 24회 나눔의 바자회

날짜: 5월 19일(주일), 장소: Broadway Btn31/32st  
문의: 추진위원장 강호영 안드레아 516-521-3113  
후원금접수: 사무실 또는 재무데스크. 바자회를 위한 물품을 후원해주실 분들은 미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바자회 판매용 헌 옷은 세탁하여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모금액 현재: \$6,985

강호영, 이영애, 큰집, 원조, 성모회 양말판매(\$785), 진홍섭, 박기목, 민완준, 조남록, 강혜숙, 강명옥, 윤동진, 노사비나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 모집

성가대 단원들과 마음 합하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실 피아노 전공하신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반주가 가능한 본인 또는 주변에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지휘자 이주윤 카타리나 646-696-4680

▶미동북부 ME 80차 부부주말

World Wide Marriage Encounter(WWME)는 혼인한 부부가 대화를 통해 부부 관계를 성장시키며 사랑의 일치 이루어 더욱 깊은 혼인 생활을 누리게 하려는 운동입니다.  
날짜: 5/24(토)~27(월) 장소: 뉴욕 롱아일랜드 헌팅턴 신학교  
신청및문의: 장철순 스테파노, 강혜운 크리스티나 646-322-3484  
참가비: \$100(부부)

▶청년 레지오 단원 모집

대상: 20대, 30대, 40대 남녀. 기도, 봉사, 따뜻함이 있는 곳!  
"기도 및 활동 나눔, 봉사, 본당 협조 등의 크고 작은 선교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희망의 모후Pr. 매주목 6pm  
문의: 단장 정다경 마리아 347-514-5783  
\*우리즐거움의 원천Pr. 매주일11am  
문의: 단장 이기원 스테파노 929-208-5147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소서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호수가 넓어야만  
별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니로구나



###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남석베드로 박재호베네딕트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로라 (FLORA YANG)  
무역 수입 IMPORT & 수출 EXPORT  
657-337-5130  
marketing@cziusa.com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 nycacu

**CHA**  
PHYSICAL THERAPY

차 물리치료 | 침치료

16 W 32nd St. #1007,  
New York, NY 10001  
212-643-9326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백승민**  
이민법 변호사  
IMMIGRATION ATTORNEY

TEL. (551) 335-8868  
EMAIL. EMIN@BAIKLAW.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린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더큰집**

TEL. 212-564-8238

**WONJO** New Wonjo  
212-695-5815

그리운 **miss KOREA** barbecue

10 W 32nd St. 1,2,3 FL, New York, NY  
212-594-4963 전 스테파노

**HB HANBIT TOUR, INC.**  
한빛여행사  
Mary Lee

1270 Broadway #303 Tel : 347-840-2112  
(32 St.- 33 St.) Fax : 212-631-8070  
New York, NY 10001 hanbittour@gmail.co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Hair City Elegance**

교우분 환영합니다.

45-38 Bell Blvd. Bayside, NY 11361  
데레사 718-423-4940

광고주를 찾습니다.



유익한 심리학



## 용서에 대한 심리 산책(1)

용서는 어떤 것일까?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내면은 어떤 부정적인 느낌이나 감정 그리고 생각에 빠진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내면은 억울함이나 서러움 등의 부정적 느낌이나 감정 그리고 생각 등으로 상처를 받는다. 평화로웠던 내면은 혼란과 고통에 빠지게 된다. 겪은 일이 클수록 그에 대한 우리의 내면은 더 큰 혼란과 고통에 빠진다. 어떤 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무너지는가 하면 어떤 이는 잠을 못 이루고 분노에 짓눌려 가까운 가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은 '나'인데 그 부정적인 영향으로 일상이 무너지는 것도 '나'인 셈이다.

용서할 일이 많은 사람의 내면은 어떨까?

늘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 사람, 매일매일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일이 일어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이 고역이요,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것이다. 그의 마음은 온갖 벌레가 기어 다니고 누더기 옷을 걸친 것처럼 산뜻하지 않을 것이다.

좋은 날도 기쁜 일이 있어도 순간순간 그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느낌이나 감정 그리고 생각이 불쑥불쑥 일어나 그의 마음은 한순간도 평화롭지 못할 것이다. 억울함에 속상하고 부당함에 밉고 나만 이러한 일을 당하나 싶어 외롭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더욱 용서하기 어려워지고 미움과 증오와 분노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져 가면서 마음은 더욱 무너져 내린다.

“일곱 번”(마태 18,21) 용서하면 될까요?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마태 18,22) 성경의 용서는 제한이 없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놀라곤 한다. ‘도대체 우리에게 어찌라는 거야?’ 하며 부당한 요구를 받은 양 불편하다. 그런데 용서와 관련된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니 성경의 가르침이 이해된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었다. ‘부당한 일로 너의 마음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누군가의 잘못으로 너의 성심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용서함으로써 너의 평화와 성심을 회복하여라!’ 등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김정민 라자로 신부



세상의 부당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평화와 우리의 내면이 무너지는 것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악’을 방지하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용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용서의 덕에 대한 가르침이기보다는 원죄로 인한 세상의 부당함, 사람들의 불의함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이 세상은 더는 ‘에덴동산’이 아니다. 오래전에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 하느님의 부재라는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 이런 세상에서 겪는 온갖 부당함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온갖 부정적인 느낌, 감정 그리고 생각들로부터 건디어 내고 이겨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에덴인 하늘 나라를 회복해야 한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마태 10,38)

용서는 덕(德)이기보다 더 큰 은총(恩寵)으로의 초대인 신앙이다.